濟州島 民謠의 作曲學的 硏究(Ⅰ)

——音樂構造를 中心으로——

羅 運 榮*

(1971. 2. 26. 접수)

—目 次—

Ⅰ. 序 論
Ⅱ. 濟州島 民謠辭說의 分類
Ⅲ. 勞動謠의 音樂的 特性
Ⅳ. 唱民謠의 音樂的 特性
Ⅴ.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陸地部 民謠의 影響
Ⅵ. 作曲學的 考察
Ⅶ. 結 論
Ⅷ. 餘 言
Ⅸ. 引用 樂譜 目錄

Ⅰ. 序 論

三多의 濟州島에는 風多, 女多, 石多 못지 않게 民謠도 많다. 男女老少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美德으로 아는 勤勉한 住民들은 音樂的 感情이 豊富하여 日常勞動中에 많은 勞動謠를 부른다. 陸地部에서는 한 地方에서 많아야 4,5種의 勞動謠가 發見되지만 濟州島에서는 한 地方에서 10餘種, 많은 곳에서는 20餘種이 發見된다. 거기다가 陸地部에서 보기 드문 唱民謠[2]가 많이 불리워지고 있어 濟州島는 民謠의 寶庫라 하겠다.

言語學, 民俗學, 文化人類學的인 面에서도 그렇겠지만 民俗音樂學的인 面에서도 濟州島는 地理的인 特殊事情에 따른 많은 問題가 있겠다.

첫째, 濟州島 民謠旋律의 特性을 밝혀내는 일이다. 民族마다 言語가 있고 地域마다 方言이 있는 것과 같이 音樂에서도 民族마다 民俗音樂旋律이 있고 地方마다 民謠가락의 특색이 있다. 濟州島 民謠旋律이 어떤 音樂的 特性이 있어 陸地部의 것과 區別되는 가를 밝히는 일이다.

둘째는, 日本, 琉球, 中國等地와 民俗音樂的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밝히는 일이다.

셋째는, 濟州島에 남아 있는 陸地部 古民謠를 硏究하는 일이다. 波動傳播現象으로 振源地에 지나간 波動이 周邊에서는 振動하고 있는 것과 같이 濟州島에서 불리워지는 民謠中에는 이미 陸地部에서 거의 消滅된 古民謠들이 있다.

넷째는, 濟州島 民謠를 作曲學的으로 다루므로써 濟州島 民俗音樂語法을 밝혀 내는 —— 國民音樂 創作의 材料로 쓰는 일이다.

筆者는 延世大學校 大學院 硏究費 補助를 받아 三次에 걸친 濟州島 民謠 錄音蒐集을 하였다. 本文에서 다룬 濟州島 民謠들은 1966年 7月 18日부터 29日까지 12日間 城山面 溫平里, 吾照里, 表善面 城邑里, 朝天面 咸德里, 西歸邑 西歸浦, 濟州市 等地에서 歌唱者 36명을 대상으로 錄音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작곡

한 第一次 蒐集民謠 200餘曲과 1967年 8月 11日부터 17日까지 7日間 涯月面 涯月里, 納邑, 郭支, 하귀, 翰京面 翰林邑, 歸德, 朝天面 咸德, 濟州市 龍潭洞, 翰京面 龍水 等地에서 歌唱者 23명을 대상으로 錄音한 第二次 蒐集民謠 100餘曲과 1970年 8月 3日부터 10日까지 8日間 濟州市 建入洞, 朝天面 咸德, 翰京面 高山里, 新昌里, 新興洞, 城山面 吾照里 等地에서 30명을 대상으로 錄音한 第三次 蒐集民謠 90餘曲, 總 400餘曲이다.

濟州島 民謠蒐集은 앞으로 계속하겠고 이것이 進行되는 대로 濟州島 民謠의 音樂的 硏究도 段階的으로 進行할 계획이다. 本文은 第一次 段階로 濟州島 民謠의 音樂的 構造를 밝히는데 重點을 두겠다.

먼저 濟州島 民謠의 音樂的 特性에 依한 分類를 하고 陸地部 民謠와 區別되는 濟州島 民謠의 音樂的 特性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 現行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陸地部 民謠의 影響은 어떤 것인가를 논하겠다.

第二次 段階 硏究인 濟州島 民謠의 地域差에 따른 音樂的 特性 및 濟州島에 남아 있는 陸地部 古民謠 硏究와 第三次 段階 硏究인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外國民謠의 硏究에 대한 것은 稿를 달리하여 發表할 계획이다.

Ⅱ. 濟州島 民謠辭說의 分類

지금까지 發刊된 濟州島 民謠辭說을 集成한 民謠集은

秦聖麒著　濟州島 民謠 第一·二·三輯

秦聖麒著　濟州島 民謠集「오돌또기」

金永三著　濟州島 民謠集

金榮敦著　濟州島 民謠硏究 上 等이 있고

濟州島 民謠辭說을 硏究한 著者는

金榮敦著　濟州島 民謠의 特色

林憲道著　瀛洲民謠의 類別的 考察

高橋 亨 著　濟州島の 民謠 等이 있다.

위의 여러 著書에 나타난 濟州島 民謠分類는 辭說의 文學的, 民俗的 內容에 依한 것이어서 이것을 音樂的 分類에 適用할 경우 몇가지 다루고 넘어가야 겠다.

우선 秦聖麒著 濟州島 民謠集「오돌또기」에 실린 分類表를 들어 보겠다.

濟州島 民謠分類 一覽表

一. 男 謠

1. 娛樂歌

ㄱ. 將棋 노래　　ㄴ. 骨牌 노래

ㄷ. 걸궁 노래

2. 輓 歌

ㄱ. 喪輿 노래 ㄴ. 달구 노래

3. 勤勞歌

ㄱ. 漁夫 노래 ㄴ. 밭가는 노래

ㄷ. 자귀질 노래 ㄹ. 도끼질 노래

ㅁ. 톱질 노래 ㅂ. 불무 노래

二. 女 謠

4. 自歎歌

ㄱ. 寡婦 노래 ㄴ. 시앗 노래

ㄷ. 시집살이 노래 ㄹ. 八字 노래

5. 情 歌

ㄱ. 자장가 ㄴ. 戀 歌

ㄷ. 怨情歌 ㄹ. 肉親歌

ㅁ. 딸 자랑가

6. 警世歌

ㄱ. 訓戒歌 ㄴ. 兩班歌

ㄷ. 說話歌

7. 勤勞歌

ㄱ. 海女 노래 ㄴ. 맷돌 노래

ㄷ. 방아 노래 ㄹ. 베틀 노래

ㅁ. 양태 노래 ㅂ. 綱巾 노래

ㅅ. 탕건 노래

三. 男女謠

8. 打 令

ㄱ. 오돌또기 ㄴ. 이야홍

ㄷ. 瀛洲十景歌 ㄹ. 逢枝歌

ㅁ. 打令 ㅂ. 雜打令

ㅅ. 軍人 노래

9. 勤勞歌

ㄱ. 밭밟는 노래 ㄴ. 곰배질 노래

ㄷ. 타작 노래 ㄹ. 따비 노래

ㅁ. 김매는 노래

10. 童 謠

ㄱ. 遊戲謠 ㄴ. 聲戲謠

ㄷ. 諧謔謠

11. 土俗歌

12. 問答歌

다른 著書에는 위에 보인 것 外에도 頌歌, 婦女詞, 進上謠等 民謠名稱이 보인다.

위의 分類들을 音樂的 分類에 適用할 경우 다루어야 할 점은 첫째 辭說內容에 依한 名稱과 唱形態에 依한 名稱이 重複될 경우이다.

검질 짓고 골 늦인 밭디

사디로나 우리멍 가게

이 김매는 노래 辭說 內容이 民謠의 唱形態 即 김매는 것과 一致한다.

산엔 가민 살장구 소리
물엔 가민 손비질 소리
집이 들민 정고래 소리
질엔 가민 질타령 소리
밭딘 가민 바랭이 소리
논에 가민 노랭이 소리
귀에 쟁쟁 염리염 서라

이 民謠는 「자진 김매는 노래」로 唱形態는 김매는 노래에 넣어 勤勞歌(勞動謠)로 分類되겠으나 辭說이 八字를 歎息하는 內容이라 하여 自歎歌로 分類되고 八字 노래라는 名稱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八字 노래에 나오는 辭說들을 살펴보면 八字 노래라는 獨立된 가락이 아니고 김매는 노래와 같은 다른 가락에 얹어 부르고 있다. 흔히 八字 타령하는 辭說은 이 民謠 가락 저 民謠 가락으로 옮겨서 부르기도 하므로 音樂的 分類에서는 八字 노래는 따로 定立할 수 없다. 「시집살이 노래」는 「고래 고는 소리」 가락에 얹어 부르므로 「시집살이 노래」도 따로 定立될 수 없다. 「시집살이 노래」는 「고래 고는 소리」가락에 얹어 부르므로 「시집살이 노래」도 따로 定立될 수 없다.

둘째는, 本土民謠 가락이나 新民謠 가락에 얹어 부르는 濟州島 民謠의 경우이다. 「부모 이별가」 「홀어머니 歎息歌」같은 것들은 京畿民謠 唱夫打令 가락에 얹어 부르는 民謠들이고 「제주도 자랑가」 「영주 十景歌」 따위는 新民謠 「大韓八景」 가락이다. 「관덕정 앞」(심목사)은 京畿民謠 「豊年歌」의 原形 「길타령」의 가락과 辭說을 약간 고친 것이다. 이와 같은 民謠를 音樂的으로 봐서는 濟州島 民謠로 보기 어렵다.

셋째는, 旋律性이 極히 적은 朗誦風의 民謠의 경우이다. 「볼락삼촌」 「중국배」 童謠 問答歌等은 本土의 朗誦風의 民謠가락과 音樂的 特性을 區別하기는 어렵다.

위 여러 경우와 같이 濟州島 民謠에서 音樂學的 分類에 들 수 없는 것들을 빼면 다음 表 1과 같은 民謠들이 남게 된다.

〈表 1〉 ① 밭 불리는 소리(밭 밟는 노래)
② 소마 모는 소리(소와 말 모는 노래)
③ 검질 매는 소리(김매는 노래)

④ 검질 매는 사대 소리(자진 김매는 노래)

⑤ 고래 고는 소리(맷돌 노래)

⑥ 촐 베는 홍애기 소리(牧草베는 노래)

⑦ 낭 깨는 소리(도끼질하는 노래)

⑧ 진토 소리(土役歌)

⑨ 잠녀 놀애(海女 노래)

⑩ 발판 찧는 소리

⑪ 마당질하는 소리(도리깨질 노래)

⑫ 달구 소리

⑬ 방애 노래—시룰 방애

⑭ 풀무 소리

⑮ 다비 노래(쟁기질 노래)

⑯ 망건 노래

⑰ 양태 노래

⑱ 자장가

⑲ 톱질 소리

⑳ 상여 소리

㉑ 오돌또기

㉒ 이야홍

㉓ 봉지가

㉔ 산천초목

㉕ 사거리

㉖ 시우제 소리

자장가, 상여 소리, 시우제 소리를 勞動謠의 一種으로 봐서 위에 든 濟州島民謠는 勞動謠(①~⑳)와 唱民謠[1](㉑~㉖)로 大別될 수 있다.

Ⅲ. 勞動謠의 音樂的 特性

筆者가 錄音蒐集한 30餘種 400餘曲[2]中에서 濟州島 勞動謠로 골라서 그 音樂形式, 리듬, 旋律等 音樂特性을 살펴 보겠다.

濟州島 民謠의 地域的 特色은 城山面, 表善面 等地를 보면 東南部地方은 唱民謠가 보다 많고 陸地部民謠의 영향이 짙은 곳이고 涯月面, 翰京面 等地, 西北部地方은 勞動謠가 많고 陸地部民謠의 영향이 보다 적은 것 같다. 本文에서 勞動謠는 西北地方의 것을 주로 다루고 唱民謠는 주로 東東部地方의 것을 다루기로 한다.

1. 形 式

陸地部 勞動謠가 그렇듯이 濟州島 勞動謠도 거의 章節歌謠形式으로 되였다. 章節의 뒤에는 뒷소리가 가추어진 것과 가추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 뒷소리는 짧다.

어어—량 하—량 〈밭 밟는 소리〉(악보 3~b)

어긴 여량 사대로 고나 〈사대 소리〉(악보 19)

쎄 두리 더럼마여 〈낭깨는 소리〉(악보 4)

이여 이연 이여도 허라 〈방애 노래〉(악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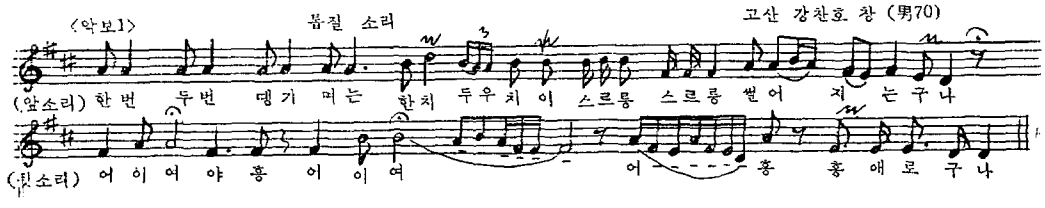
아아 홍애로구나 〈촐베는 소리〉

이여 이여　　도 허라 〈고랫 노래〉(악보 3-c)

에헤 홍아야 〈마당질 소리〉(악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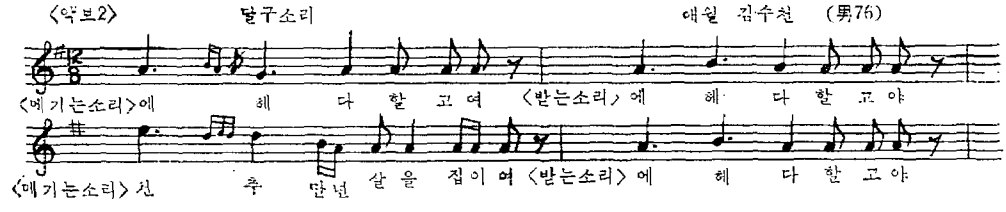
에헤야 오 〈토역 소리〉(악보 3)

에이여 홍 어이여 홍 홍애로구나 〈톱질 소리〉(악보 1)



(1970. 8. 4.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상여 소리」「달귀 소리」는 章節의 한·두장단마다 뒷소리와 辭說이 같은 받는 소리를 交唱하게 되였고 「해녀 노래」「발판 찧는 노래」는 2박 혹은 한장단마다 메기는 소리 따라 부르거나 딴 辭說을 交唱하게 되었다. 〈악보 2〉 〈악보 8〉



(1969. 8. 13.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면)

앞소리의 길이는 固定拍子의 경우 4~8小節 가량이고 自由 리듬의 경우에도 비슷한 길이로 되었다. 自由 리듬의 民謠는 앞소리의 길이가 節마다 一定하지 않으므로 章節마다 가락이 完全히 같게 되풀이 될 수는 없다. 〈악보 3-a〉 〈악보 3-b〉

2. 리 듬

濟州島 勞動謠는 그 리듬 形態에 따라 自由 리듬型과 固定 리듬型으로 나눌 수 있다.

① 自由 리듬형

濟州島 民謠에는 自由 리듬形態로 된 것이 많다. 느린 速度의 旋律은 긴 音에 짧은 裝飾的인 音이 많이 붙고 Melisma가 딸리기도 한다. 每拍子의 길이도 不規則하다. 音마다 길이가 不定하여 記譜하는데 매우 까다롭다. 自由 리듬形態로 된 濟州島 民謠는 다음과 같다.

밭 발리는 소리 〈악보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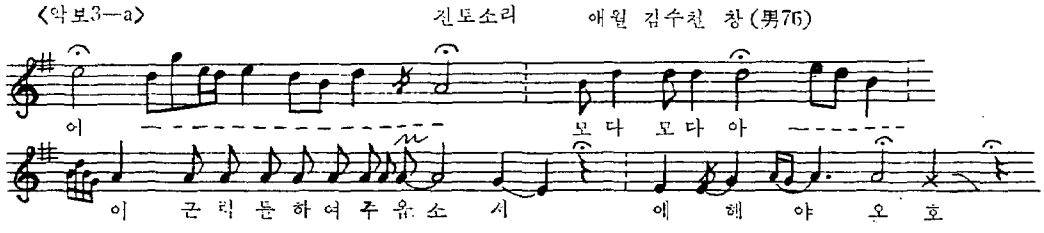
소마 모는 소리

촐 베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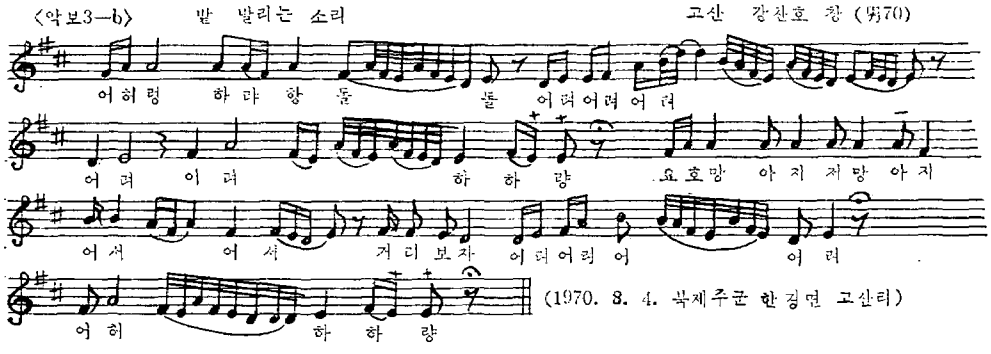
고래 고는 소리 〈악보 3-c〉

진토 소리 〈악보 3-a〉

톱질 소리 〈악보 1〉



(1967. 8. 13.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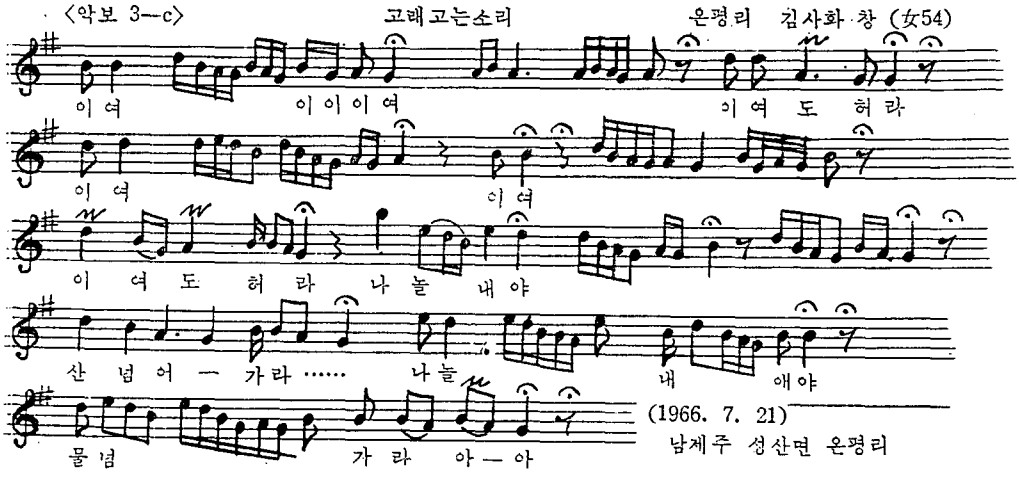


(1970. 8. 4. 북제주군 한림면 고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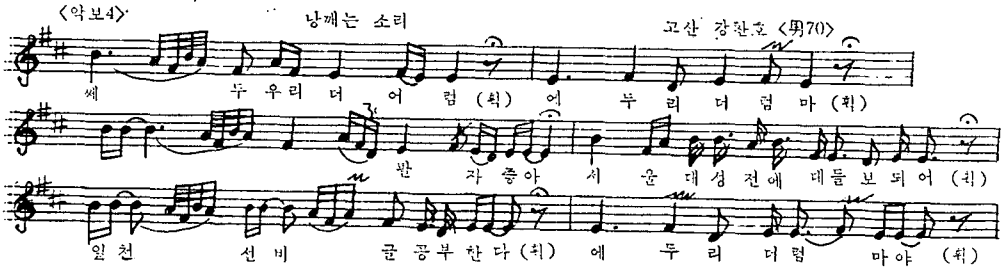
自由 리듬型 勞動謠中에는 몇 音을 약간 縮小하거나 擴大하여 調整하면 固定拍子가 되는것도 있다.

낭깨는 소리 〈악보 4〉

검질메는 소리 〈악보 6〉



(1966. 7. 21)
남제주 성산면 온평리



(1970. 8. 4.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위의 여러 民謠는 $\frac{12}{8}$로 調整될 수 있다.

② 固定 리듬型

固定 리듬形態로 된 濟州島 勞動謠는 모두 3分拍子로 本土 民謠의 중모리, 중중모리, 타령과 같은 長短에 마출 수 있어서 3分되는 拍이 넷으로 한 長短을 칠 수 있다(濟州島에서는 巫歌 外에는 打樂器를 치는 일이 極히 드물어서 民謠에 쓰이는 土俗長短이 發見되지 못했다). 固定 리듬形態로 된 勞動謠는 다음과 같다.

해녀 노래 〈악보 1〉

사대 소리

시우제 소리 〈악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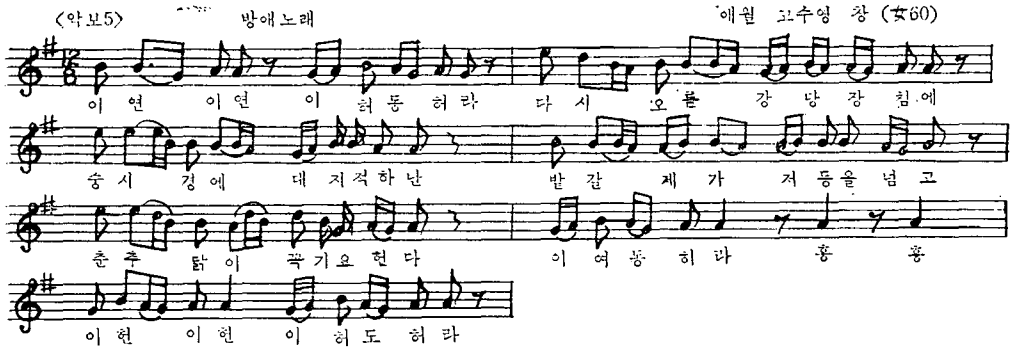
상여 소리

달구 소리 〈악보 2〉

발판 찧는 소리 〈악보 8〉

방애 노래 〈악보 5〉

마당질 소리 〈악보 7〉



(1967. 8. 13.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

濟州島 民謠 辭說集에서 위와 같은 勞動謠는 모두 定形詩처럼 4·5調나 4·4調를 한 行으로 적고 있는데 이것들은 $\frac{12}{8}$拍子 한 小節에 規則的으로 들어간다. 리듬은 ♪♩ 즉 짧은 音 다음에 긴 音이 따르는 것이 많다.

固定된 리듬에 依한 作業에서 불리우는 방애 노래, 해녀 노래, 발판 찧는 노래, 마당질 노래에서는 固定 리듬形態가 固守되나, 그렇지 못한 사내 소리, 달구 소리와 같은 勞動謠에서는 唱者에 따라 약간 不規則한 리듬을 곁들여서 부른다. 세 사람이 찧는 「시꼴 방애」는 3分 拍子로 「방애 노래」가 불리워지고 두 사람이 찧는 「두꼴 방애」는 2分 拍子로 불리우기도 한다. 固定리듬型의 勞動謠에서 당김법은 보이지 않는다.

3. 旋 律

濟州島 民謠의 旋律的 特性은 地域과 唱者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이 差異點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本文에서는 보다 濟州島的인 特性을 갖었다고 생각되는 濟州島 西北部 勞動謠中에서 일반적인 것을 골라서 旋律的 特性을 따져 보겠다.

① 構成音과 音階

濟州島 勞動謠의 構成音을 가려내고 音階를 따져보면 全音 5音階로 되어 있다.

ⓐ 톱질 소리 〈악보 1〉

D E F# A B d……構成音

〔do〕 re mi sol la do……全音 5音階

※〔 〕內는 終止音

ⓑ 달구 소리 〈악보 2〉

G A B d e

do 〔re〕 mi sol la

달구 소리는 唱者에 따라서 다른 音이 되기도 한다.

ⓒ 진토 소리 〈악보 3-a〉

E	G	A	B	d	e	g
la	do	[re]	mi	sol	la	do

ⓓ 밭 발리는 소리 〈악보 3-b〉

D	E	F#	A	B	d
do	[re]	mi	sol	la	do

ⓔ 고래 고는 소리 〈악보 3-c〉

G	A	B	d	e	g
[do]	re	mi	sol	la	do

ⓕ 낭 깨는 소리 〈악보 4〉

D	E	F#	A	B
do	[re]	mi	sol	la

ⓖ 방애 노래 〈악보 5〉

G	A	B	d	e
do	[re]	mi	sol	la

ⓗ 검질 매는 소리 〈악보 6〉

E	F#	A	B	d
[re]	mi	sol	la	do

ⓘ 마당질 소리 〈악보 7〉

A	B	C#	e	f#
[do]	re	mi	sol	la

ⓙ 발판 찧는 소리 〈악보 8〉

E	F#	A	B	C#
[sol]	la	do	re	mi

ⓚ 시우제 소리 〈악보 9〉

C	D	F	G	Bb	c	d
re	mi	[sol]	la	do	re	mi

濟州島 勞動謠 音階는 거의 全音 5音階로 陸地 中部地方에 勞動謠가 全音 5音階로 된 것이 많은 것과 같다. 陸地 南部地方에 있는 微分音이 많은 가락의 音階는 보이지 않고 日本의 平調子 雲井 혹은 琉球 民俗音階와 같이 半音이 섞인 音階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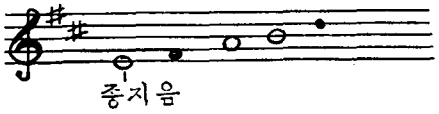
② 終止音과 音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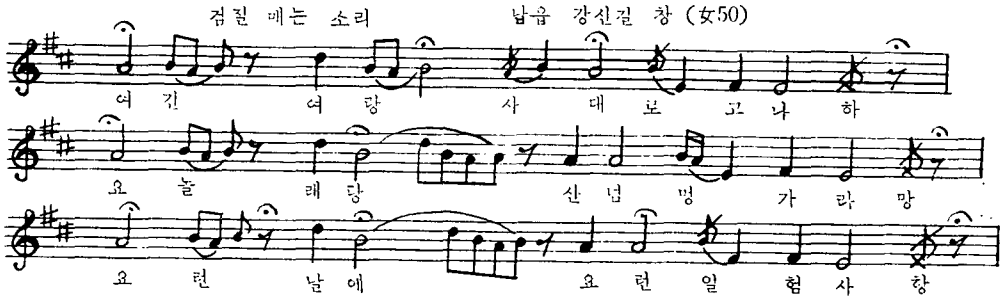
濟州島 勞動謠를 終止音에 따라 分類하고 그 音組織을 살피겠다.

ⓐ Re 終止

⊙검질 매는 노래 〈악보 6〉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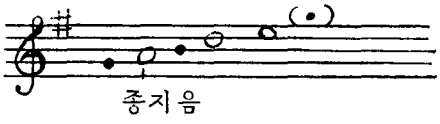
終止音 Re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短 7度上音으로 構成되었으며, 終止音과 4度上音, 5度上音이 主要音이 되었다.





이와 같음 音組織을 갖는 勞動謠는 다음과 같다.

검질 매는 노래 〈악보 6〉



◉달구 소리 〈악보 2〉型

終止音 Re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短 7度上音과 長 2度下音으로 構成되었으며 終止音과 4度上音, 5度上音이 主要音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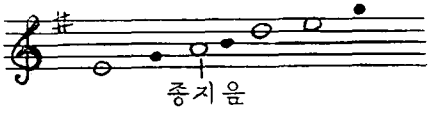
이와 같은 音組織을 갖는 勞動謠는 다음과 같다.

방애 노래 〈악보 5〉

해녀 노래 〈악보 1〉

밭 발리는 소리 〈악보 3-b〉

낭 깨는 소리 〈악보 4〉



◉진토 소리 〈악보 3〉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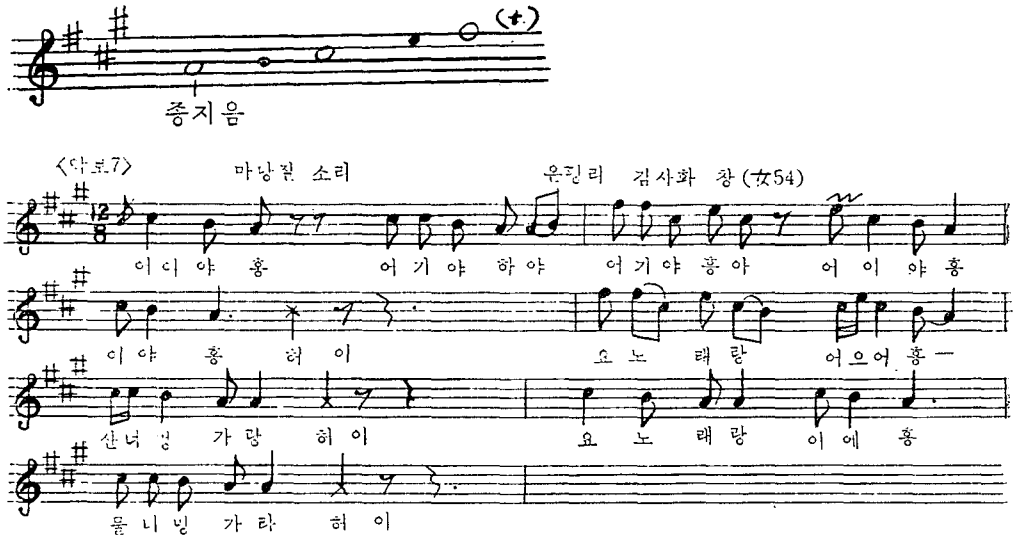
終止音 Re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短 7度上音과 長 2度下音, 4度下音으로 構成되었으며 終止音과 4度上音, 5度上音 및 4度下音이 主要音이 된다.

勞動謠 중에 終止音 아래 4度下音이 갖추어진 自由 리듬型 民謠는 이것밖에 없다. 진토 소리에서도 이와 같이 4度下音을 갖추어 부르는 唱者도 드물다.

ⓑ Do 終止

◉마당질 소리 〈악보 7〉

終止音 Do에서 長 2度上音, 長 3度上音, 5度上音, 6度上音으로 構成되었으며 終止音과 長 3度上音, 長 6度上音이 主要音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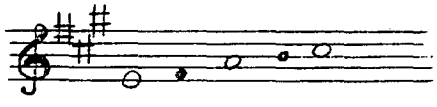
이와 같은 音組織을 갖는 勞動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래 고는 소리 〈악보 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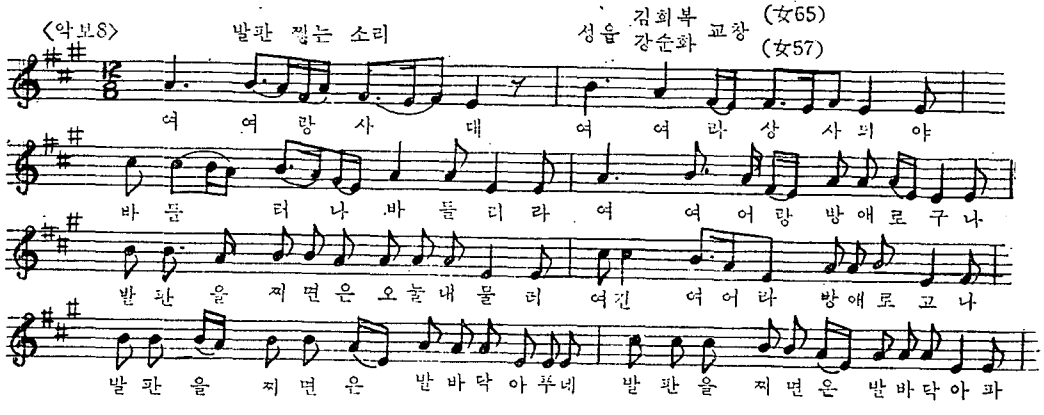
톱질 소리 〈악보 1〉

ⓒ Sol 終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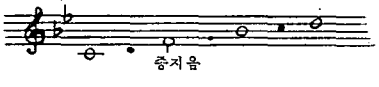
◉발판 찧는 노래 〈악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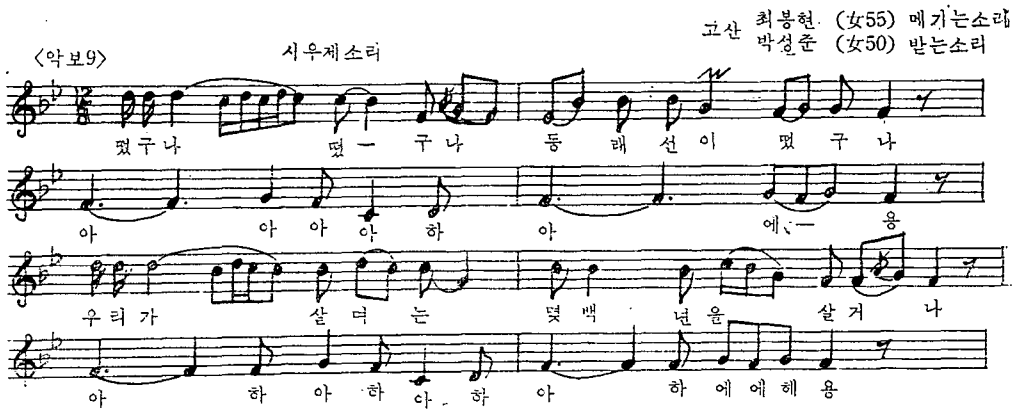
終止音 Sol에서 長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長 6度上音으로 構成되었다. 終止音, 4度上音, 長 6度上音이 主要音으로 되었다.



◉시우제 소리 〈악보 9〉



終止音 Sol에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長 6度上音과 短 3度下音, 4度下音으로 構成되었다. 終止音, 4度上音, 短 6度上音 및 4度下音이 主要音이 된다.



(1970. 8. 4.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Sol로 終止하는 勞動謠는 東南部地方「사대 소리」가 있다. 「사대 소리」는 西北部 地方에서는 Re로 終止하는 경향이 있어 地域的 差異를 보인다.

Ⅳ. 唱民謠의 音樂的 特性

表 1에 있는 濟州島 民謠에서 勞動謠를 빼고 남은 것은 다음과 같다.

오돌또기	이야홍
봉지가	산천초목
사거리	용천검

이들 民謠中에는 본래 濟州島 民謠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現在 濟州島에서 많이 불리워지고 陸地에서 거의 사라져간 것들이므로 濟州島 民謠로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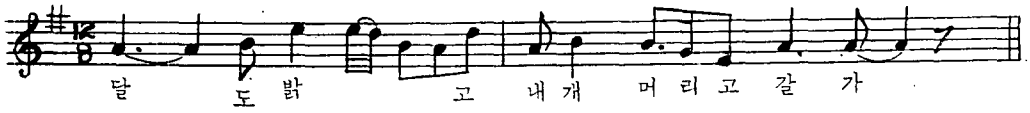
1. 形 式

위의 唱民謠는 모두 章節歌謠形式으로 되었다. 뒷소리에 길게 입다령이 붙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앞소리와 뒷소리의 크기가 같아서 二部分形式이 된다. 앞소리의 길이는 중중모리 4長短 정도이고 뒷소리도 비슷하다.

2. 리 듬

이 唱民謠들은 모두 固定 리듬形態로 되었고 自由 리듬形態는 없다. 이 民謠들이 3分拍子로 된 것은 本土에서 3分拍子가 많은 것과 一致한다. 勞動謠에는 ♪♩ 리듬, 즉 짧은 音 다음에 긴 音이 따르는 리듬이 많은데 反하여 이들 唱民謠에는 ♩♪ 리듬, 즉 긴 音 다음에 짧은 音이 따리는 것이 다르다. 또勞動謠에 보기 드문 당김법 리듬이 나오는 것이 다르다. 〈악보〉

〈악기10〉　　오돌또기



3. 旋 律

① 構成音과 音階

唱民謠 또한 全音五音階로 되었다.

ⓐ 오돌또기 〈악보 12〉

D	F	G	A	c	d	f ……構成音
la	do	[re]	mi	sol	la	do…… 5音階

ⓑ 이야홍 타령 〈악보 11〉

C	D	F	G	Bb	c	d	f ……構成音
[re]	mi	sol	la	do	re	mi	sol…… 5音階

ⓒ 산천초목 〈악보 13〉

D	G	A	B	d	e
sol	[do]	re	mi	sol	la

ⓓ 봉지가 〈악보 15〉

G	A	c	d	e	g
[sol]	la	do	re	mi	sol

ⓕ 용천검 〈악보 14〉

E	G	A	B	d	g
la	[do]	re	mi	sol	la

勞動謠는 물론이고, 陸地色이 짙은 唱民謠들도 모두 全音 5音階로 된 것을 보면 濟州島 民謠는 바로 隣接地域인 全羅道 육자백이 가락의 影響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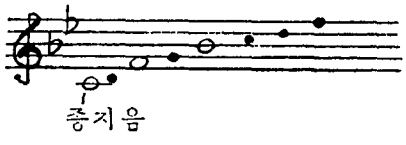
② 終止音과 音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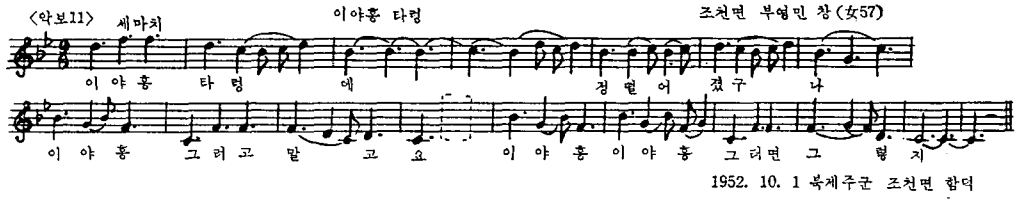
濟州島 唱民謠의 終止音과 音組織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Re 終止

⊙이야홍 타령 〈악보 11〉型

終止音 Re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短 7度上音, 8度上音, 長 9度上音, 11度上音으로 構成되었으며 終止音, 長 2度上音, 短 7度上音, 11度上音等이 主要音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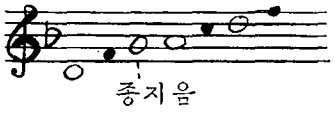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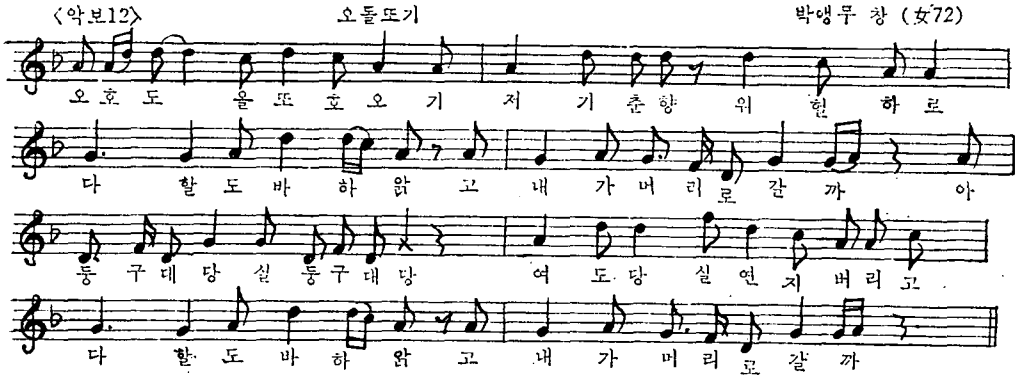


(1962. 10. 1.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오돌또기 〈악보 12〉型

終止音 Re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短 7度上音과 長 2度下音, 4度下音으로 構成되었고 4度下音, 終止音, 長 2度上音, 5度上音이 主要音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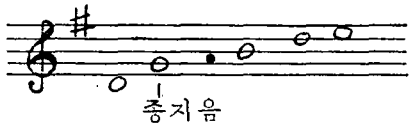
(1962. 12. 23. 서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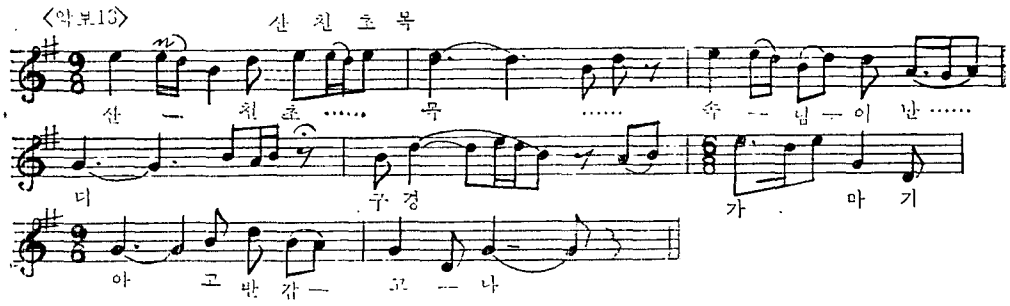
Re 終止되는 民謠中에서 4度下音을 갖는 것은 勞動謠 진토소리 外에는 오돌또기 밖에 없다. 이 點은 陸地部 民謠와 關聯시켜 硏究해 볼 일이다.

ⓑ Do 終止

⊙산천초목 〈악보 13〉型

終止音 Do에서 長 2度上音, 長 3度上音, 5度上音, 長 6度上音과 4度下音으로 構成되었고 終止音 5度上音, 長 度上音이 主要音으로 되었지만 모든 構成音이 比較的 均等하게 出現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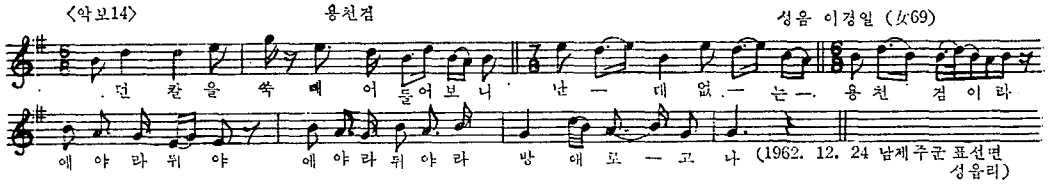
이와 같은 音組織을 갖는 唱民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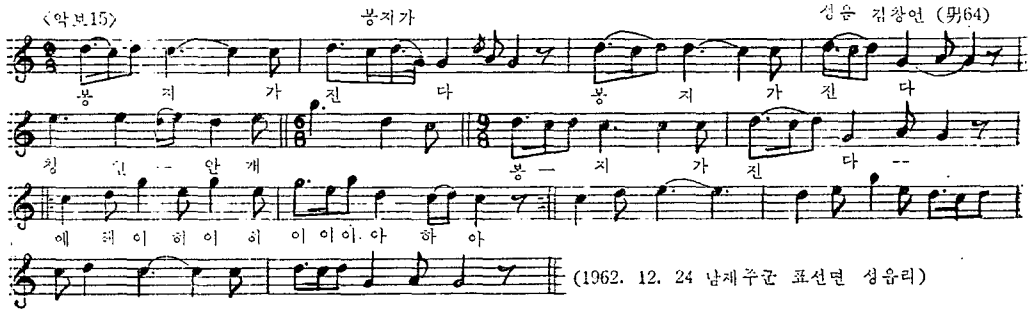
오동추야

◉용천검 〈악보 14〉型

終止音 Do에서 長 2度上音, 長 3度上音, 5度上音, 長 6度上音, 8度上音과 그리고 短度下音으로 構成되었고 終止音, 長 3度上音, 長 6度上音이 主要音이 된다.



濟州島 民謠에는 終止音 아래 短 3度音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용천검은 濟州島的인 旋律이 아니다.



ⓒ Sol 終止

⊙봉지가 〈악보 15〉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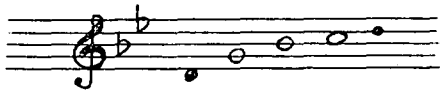
終止音 Sol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長 6度上音, 8度上音으로 構成되었고 終止音 4度上音, 長 6度上音이 主要音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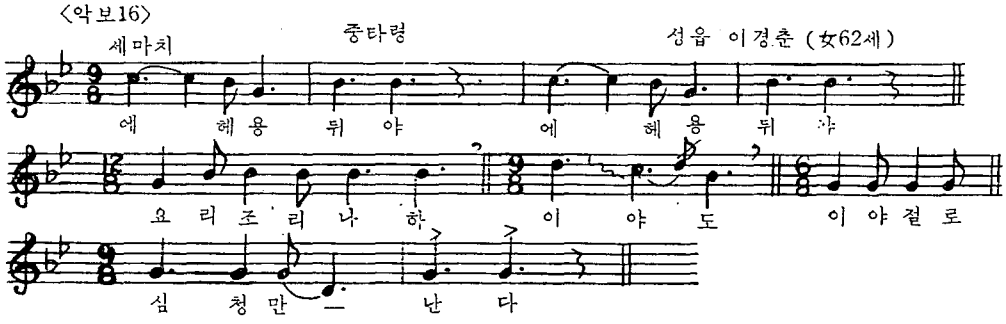
終止音과 旋律進行은 다르지만 音組織은 「산천초목」의 것과 같다. 이러한 音組織은 陸地部民謠 山打鈴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서로 音樂的 關係가 있다고 봐진다.

ⓓ La 終止

⊙중타령 〈악보 16〉型

終止音 La에서 短 3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그리고 아래로 4度下音으로 構成되었고 終止音, 短 3度上音, 4度上音이 主要音이 된다.





終止音에서 短 3度音을 갖는 音組織 즉 La旋法(第5旋法)은 濟州島 民謠에는 없고 陸地部 民謠에서 흔히 보이므로 중타령은 陸地部 民謠로 봐진다.

濟州島 唱民謠中에서 Re로 終止되는 民謠는 「오돌또기」「이야홍」가 있고, Do로 終止되는 「산천초목」「사거리」「오동추야」「용천검」, Sol로 終止되는 「봉지가」, La로 終止되는 「중타령」等이 있으나 이들 民謠는 모두 全音 5音階로 되었다.

V.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陸地部 民謠의 影響

濟州島 民謠는 勿論, 陸地部 民謠의 音樂的 硏究 또한 未盡한 형편이므로 濟州島와 陸地部의 兩民謠에 대한 音樂的 硏究는 限界가 있을 줄로 안다. 本文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陸地部 民謠와 濟州島 現地에서 採錄된 民謠들을 比較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1. 濟州島에서 불리워지는 現行 陸地部 民謠

濟州島 現地에서 民謠蒐集中에는 現用 陸地部 民謠들이 採集된다. 이것들 自體는 陸地部 民謠이므로 注目되는 것이 아니지만 濟州島民들의 陸地部 民謠에 대한 受容形態를 알아 보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濟州島에서 불리워지는 現行 陸地部 民謠를 道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京畿民謠……노래가락, 창부타령, 양산도, 청춘가, 방아타령, 이별가, 개성난봉가

西道民謠……산염불, 영변가, 긴 난봉가

其　他……성주풀이

위의 民謠들은 거의 京西道民謠이며 南道民謠가 드문 것이 注目된다. 特히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全羅道 육자백이調 民謠를 부르는 이가 거의 없다. 이것은 濟州島 民謠목이 全羅道民謠 육자백이목과는 아주 다르고 京西道民謠목과 音樂的으로 비슷한데서 오는 理由로 봐진다. 全音 5音階는 濟州島 陸地部에서는 京畿道와 黃海道地方 民謠에서 强하게 나타난다.

2. 濟州島에서 불리워지는 陸地部의 古民謠

陸地에서 많이 불리워지지 않는 古民謠들이 濟州島에서 불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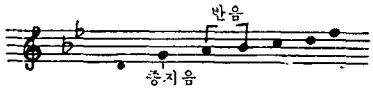
① 개구리 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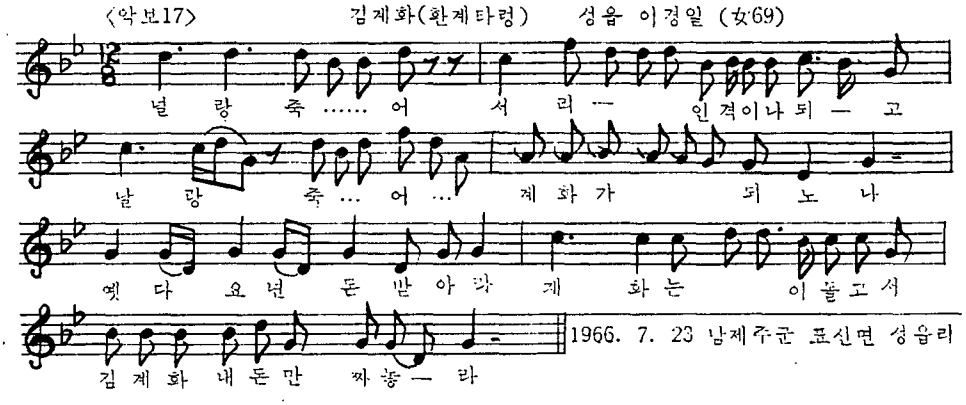
京畿民謠「청개구리 타령」으로 京畿地方에서도 부르는 이가 드물다.

② 계화 타령 〈악보 17〉

濟州島에서 계화 타령은 황계 타령 혹은 김계화라고도 불리운다. 이 民謠는 濟州島 東南地方에서 불리워지는 것으로 본래 慶尙道에서 불리우든 民謠이다. 濟州島 계화 타령은 終止音에서 長 2度上音, 短 3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短 7度上音, 그리고 4度下音으로 構成되어 音階는 6音階로 長 2度上音과 短 3度土音 사이에 半音이 생긴다.

半音이 포함된 音階는 陸地 南部地方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旋律形態는 慶尙 勞動謠에서 보이지만 濟州島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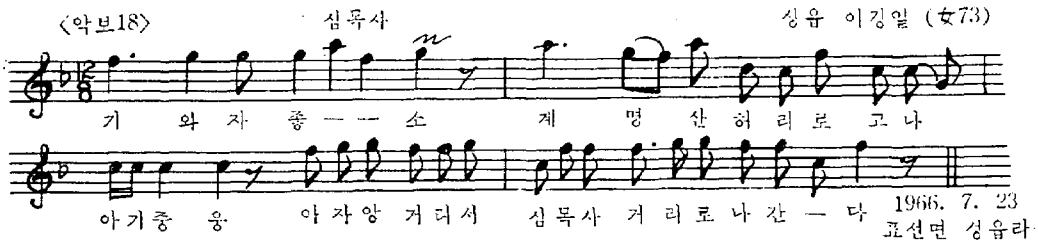




③ 심목사 〈악보 18〉

京畿道 廣州地方 선소리「길타령」이 濟州島에서 辭說이 약간 변하였다.「심목사」「관덕정앞」

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濟州島化된 辭說에서 나온 이름이다. 陸地에서 이 民謠는 거의 불리워지지 않고 그 가락은 辭說을 바꾸어 豊年歌로 불리워지고 있다.



④ 솔학 타령

陸地에서 옛날에 불리워지던 民謠로 배꽃 타령이라고도 한다.

⑤ 길군악

靑丘永言等 古歌集에도 보이고 오늘날 十二歌詞의 하나로 불리워지는 길軍樂(혹은 路謠曲)이 있다. 또 陸地의 中南部 地方에 同名의 民謠가 간혹 불리워진다. 濟州島「길국악」과 十二歌詞 길軍樂과 陸地民謠「길군악」은 서로 比較硏究할 音樂的 課題가 남아 있지만, 辭說은 서로 通하고 있다.

⑥ 달거리

靑丘永言에「觀燈歌」로 보이고 오늘날 京畿十二雜歌에「달거리」가 있고 本土 雜歌中에 이런 辭說이 불리운다. 濟州島에서「달거리」는 京畿雜歌와 같은 가락으로 불리우지만 唱者(涯月里 梁姓女)에 따라서 唱夫打令 가락에 얹어 부르기도 한다.

濟州島에서 더러 불리우는 長編雜歌類는 本土雜歌과 關聯이 있다고 보이며 가락은 濟州島 勞動謠 가락과 다르다. 이런 雜歌는 Re終止型이 없다.

3. 山打令系 民謠

南濟州 城邑地方을 中心으로 불리워지는 많은 唱民謠中에는 陸地部에서 옛날에 많이 불리워지던 山打令과 關係가 깊은 民謠들이 많다. 이들 民謠는 陸地部의 山打令硏究에 貴重한 資料들이다.

① 산천초목 〈악보 13〉

이 民謠는 京畿山打令 늘량, 西道山打令 늘량, 南道雜歌 花草 사거리의 첫머리 辭說과 같다.

산천초목 속잎이 난 디
구경 가기가 반갑도다

이 辭說은 申在孝 가루지기타령에 사당패 선소리에도 나온다. 옛날 사당패 山打令에 이와 같은 가락이 불리워졌다.

韓萬榮氏는「山打令에 關한 硏究」論文에서 山打令의 音構成은 d′—e′—g′—a′—b′로 된 5音階로 보고 d′와 g′音 사이 4度音程과 g′와 b′ 사이의 長 3度音程이 山打令의 旋律的 特性이라고

했다. 이 旋律的 特性은 濟州島民謠, 「산천초목」에서도 一致한다.

② 사거리

사거리라는 樂曲名稱은 本土山打令에서 볼 수 있다. 花草 사거리, 놀량 사거리, 사거리(西道 앞산 타령)等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거리는 山打令 樂曲名인 것같다. 이 民謠의 辭說은 모두 陸地部 民謠나 山打令에서 보이는 것들 뿐이며 가락의 音組織은 「산천초목」과 같아서 陸地山打令과 關係가 있을 것 같다.

③ 오동추야

오동추야 달밝은 밤에 임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날 생각하리라. 에야

이와 같은 辭說은 古代小說 興甫歌에 短歌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音組織이 「산천초목」과 비슷한 것으로 봐서 이 民謠도 山打令系 民謠로 보인다.

④ 용천검 〈악보 14〉

이 民謠는 一名 「남사당」이라고 불리우며 唱者들에 依하며 옛날 사당패 노래라고 한다. 그 辭說은 濟州島 方言이 아니고 本土民謠이며 그 內容으로 봐서 사당패 노래로 봐진다. 이 民謠의 音組織은 濟州島에서 볼 수 없는 終止音에서 短 3度下音을 갖고 있다. 〈前章參考〉

⑤ 오돌또기 〈악보 12〉

오돌또기는 現在 濟州島 代表的인 唱民謠로 꼽히고 있다. 京畿民謠 「오돌독」• 濟州島 오돌또기가 80년前에 傳하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京畿民謠 「오돌독」과 濟州島 「오돌또기」 辭說이 너무 差異가 있고 또 各地方에 간혹 오도도기 打令이 보이는 것은 오돌또기 民謠의 起源은 本土에 있는것 같다. 申在孝 가루지기打令 辭說에는 오돌또기가 사당패의 노래로 나오고 있다.

오돌또기 춘양춘양
워월의 달은 발고 명랑한띄
여긔다 져긔다 연자버리고
마리못된 경이로다
萬疊靑山은 숙숙들어가셔
늘어진 버들 나무
드립떠 덥썩 휘여잡고
손으로 줄을을 훌터다가
물의다 둥둥 훌여두고
둥덩덩실 둥덩덩실
여긔다 져긔다 연자버리고
마리 못된 경이로다

濟州島 民謠 오돌또기의 起源이 山打令에 있는 것은 더욱 硏究해 봐야 하겠고 現用 오돌또기의 第二節 以下에 불리워지는 辭說은 濟州島 民謠이며 가락은 濟州島 勞動謠에서 흔히 보이는 Re終止 5音階인 것으로 봐서 가락과 辭說은 濟州島化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現行 오돌또기는 濟州島 民謠로 쳐도 좋다고 본다.

⑥ 봉지가 〈악보 15〉

本土 古民謠에 同名의 民謠가 있다. 濟州島 民謠 봉지가의 가락에 나타난 旋律的 特性은 「산천초목」과 비슷한데가 있어서 山打令系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陸地部 民謠 봉지가와 比較하여야 더 硏究해 봐야 할 일이다.

4. 勞動謠에 나타난 陸地部 民謠의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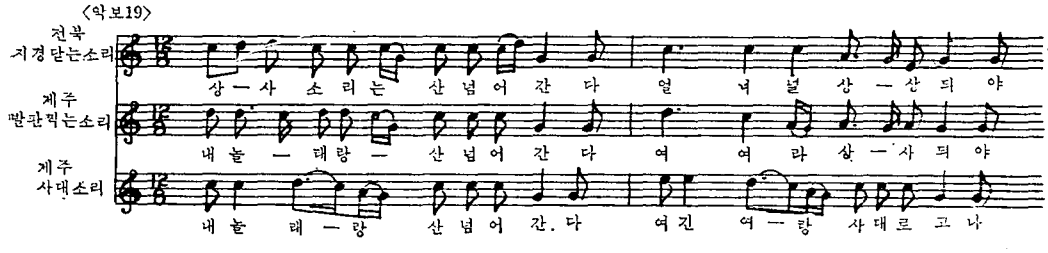
陸地部 民謠의 音樂的 硏究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濟州島 勞動謠에 얼만큼 陸地部民謠의 影響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이것은 앞으로 陸地部 民謠의 硏究에 따라 濟州島 勞動謠에 나타난 陸地部 民謠의 音樂的 影響이 더 들어나겠지만 本文에서는 지금까지 發見된 兩民謠의 資料들을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앞에서 밝힌 대로 제주도 勞動謠는 Re終止하는 5音階가 多數이고 Do로 終止하는 것과 Sol로 終止하는 것이 몇 種이 있었다. 陸地部 民謠에서는 Re로 終止하는 5音階로 된 民謠가 드문 점으로 봐서 Do로 終止하는 民謠와 Sol로 終止하는 民謠를 먼저 골라 陸地部 民謠와 比較하기로 하겠다.

Sol로 終止하는 濟州島 勞動謠는 濟州島 東南部地에서 불리우는 「발판 찧는 소리」「사대 소리」「시우제 소리」 三種을 들 수 있다.

① 발판 찧는 노래, 사대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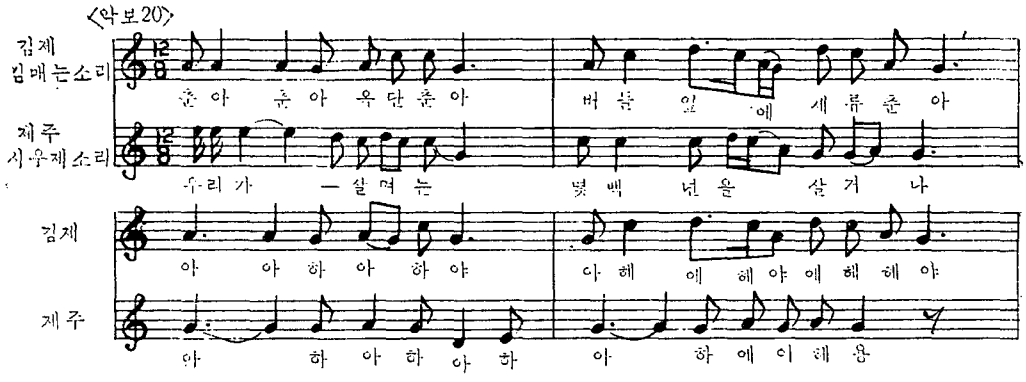
사대 소리는 「자진 검질 매는 소리」의 一種으로 濟州島 各地方에서 불리워지는데 終止音은 地方에 따라 다르지만 東南地方 「사대 소리」와 「발판 찧는 노래」는 5音階로 Sol로 終止되고 音組織은 終止音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長 6上音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旋律特性을 갖는 民謠는 陸地部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例를 들어 全北地方 「지경 닫는 소리」의 旋律과 比較하면 音樂的 特性은 勿論 가락까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19〉



② 시우제 소리

濟州島 시우제 소리는 본래 濟州島 章節巫歌로 民謠化하여 誤樂謠, 勞動謠로 불리운다. 시우제 소리의 終止音도 地方에 따라 다르지만 Sol로 終止되는 「시우제 소리」는 陸地部 民謠에 보다 가깝게 들린다. 金堤地方 「자진 지심매는 소리」와 그 가락을 比較하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9〉 〈악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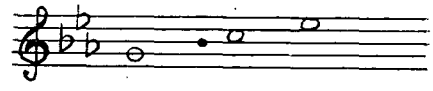
濟州島 勞動謠에는 Sol終止되는 것들이 드물고 陸地部에 많은 것으로 봐서 濟州島 勞動謠에서 Sol로 終止되는 旋律形態는 陸地部 影響이라고 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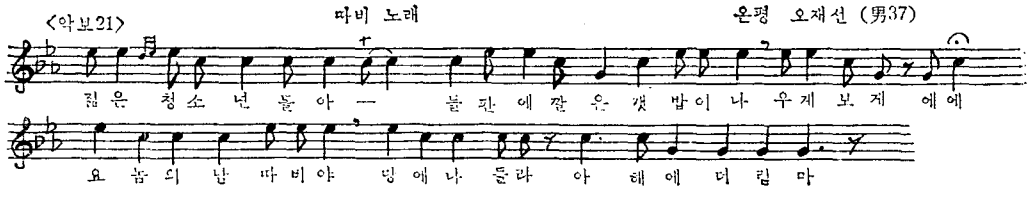
Do로 終止하는 勞動謠는 濟州島 勞動謠에도 地域에 따라 많이 있는 곳도 있으니 陸地部 影響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陸地部에서도 Do로 終止하는 勞動謠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陸地部 民謠 및 濟州島 民謠의 地域別 硏究가 더 進行되어야 가름할 수 있겠다.

La 혹은 Mi로 終止하는 勞動謠는 極히 一部에서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濟州島 勞動謠에서 일반적인 旋律이 못되므로 濟州島 民謠로 칠 수 없다.

③「따비 노래」, 온평리「톱질 소리」

따비 노래는 東南部 外의 地方에서는 불리워지지 않으며 他地方 톱질 소리는 가락이 다르게 불리워져서 Do로 終止된다. 〈악보 1〉 東南部地方 따비 노래와 톱질 소리는 La 혹은 Mi로 終止되는데 濟州島 民謠에서 Mi와 La 사이 4度音程위에 La와 Do 사이 短 3度音이 없어진 旋律形態는 보이지 않는다. 〈악보 21〉





(1966. 7. 21. 남제주군 성산면 온평리)

濟州島 따비 노래와 같은 旋律形態는 陸地部 特히「메나리」「초부가」와 같은 江原道, 忠淸道,

慶尙道地方 勞動謠에서 볼수 있다.

Ⅵ. 作曲學的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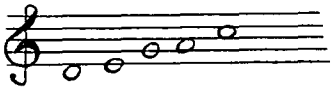
1. 리듬 素材

濟州島 民謠의 리듬素材는 陸地部 民謠처럼 豊富하지 못하다. 巫樂을 除外하면 打樂器를 쓰는 일이 없으므로 民謠에서 器樂的 리듬 伴奏가 없다. 허벅을 두드리는 수가 있으나 ♩♪, ♩♪, 하는 單純한 리듬이다. 比較的 변화있는 리듬을 갖는 民謠는 唱民謠로 陸地部의 影響이라 할 수 있다.

2. 音階 素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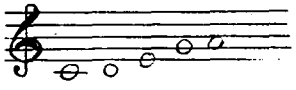
濟州島 民謠 構成音階는 全音 5音階인 점에서 陸地部民謠와 差異가 없다.

Re로 終止하는 5音階 第2旋法은 濟州島 勞動謠에 많이 나타나므로 韓國音樂語法에 새로운 素材가 된다. 陸地部 民謠에서는 드물다는 점과 日本民謠에 Re로 終止되는 音階가 있는 점에서 比較音樂的인 問題를 던져준다.



Do로 終止되는 全音 5音階 第1旋法은 濟州島 勞動謠에 Re終止 다음으로 많다. 陸地部 民謠에는 Do로 終止되는 民謠가 있으나 勞動謠보다 선소리系統 唱民謠에 많은 점이 注目된다.

Sol로 終止되는 全音 5音階 第4旋法은 濟州島 勞動謠에서는 드물고 陸地部에 많은 점으로 봐서 陸地部 音樂語法에 든다고 봐진다.



La로 終止되는 全音 5音階 第5旋法은 濟州島 唱民謠에도 드물게 나타나므로 이것도 陸地部 音樂語法으로 봐야 맞다.

3. 旋律線

濟州島 民謠의 가장 간단한 旋律線은 下向性 旋律線이다. 머릿쪽이 最高音이고 꼬리쪽이 最低音으로 대개 最低音은 終止音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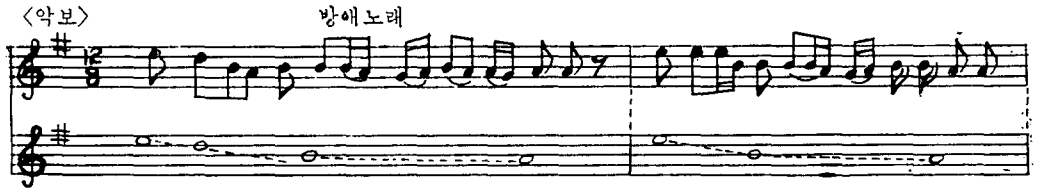
발판 찧는 소리 〈악보 8〉

마당질 소리 〈악보 7〉

방애 노래 〈악보 5〉

낭 깨는 소리 〈악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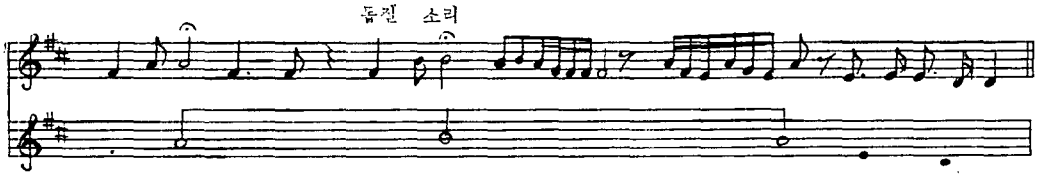
下向性 旋律線은 어느 地方에서나 原始形態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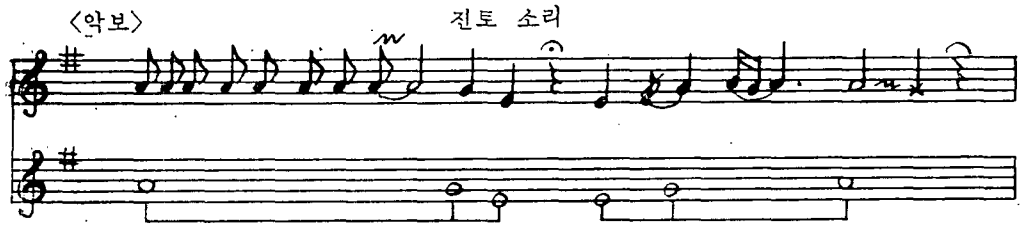
旋律線의 머리쪽과 끄리쪽이 最低音이고 中央이 最高音인 上向性에 이어서 下向性旋律線으로 山形을 이루는 勞動謠도 볼 수 있다.

밭 밟는 소리 〈악보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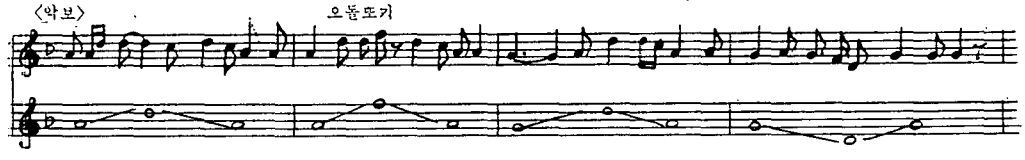
톱질 소리 〈악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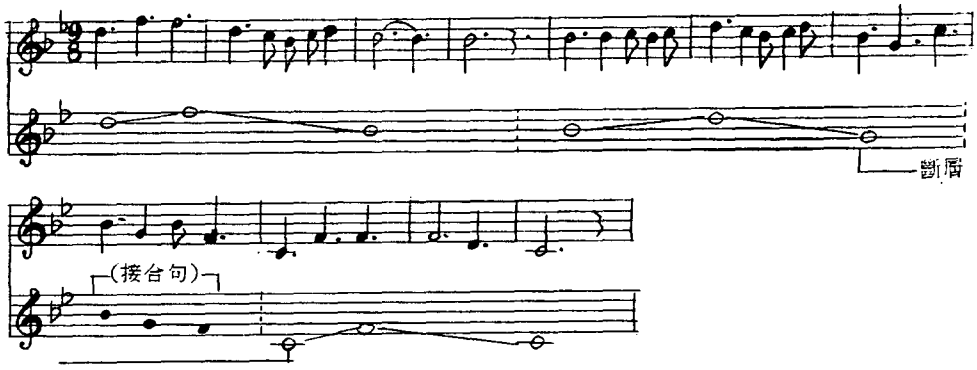
진토소리는 下向性에 이어서 上向性 旋律線이 接合하여 谷形을 이루고 兩便이 均衡이 잡힌 것도 있다.



唱民謠는 대개 변화있는 自由스런 旋律線으로 되었다. 오돌또기는 全體的으로 봐서 下向性 旋律線을 갖지만 小節마다 山形 혹은 谷形의 變化를 주고 旋律音型마다 順次的 接合으로 流暢하게 進行된다.



이와 反對로 이야홍타령은 旋律音型 사이에 斷層이 된 部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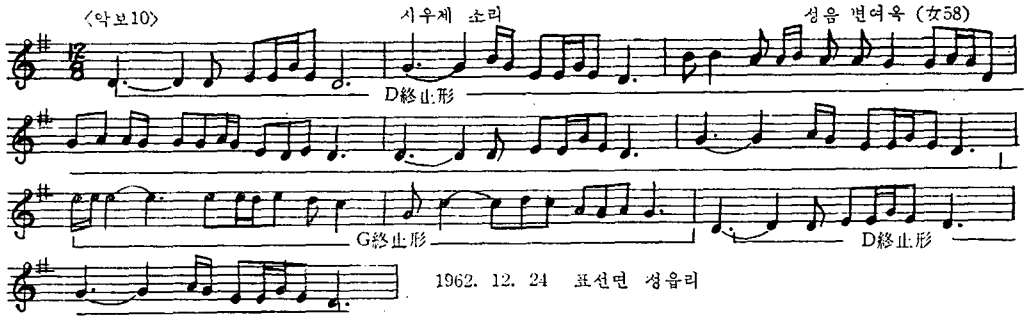


이점은 이야홍타령이 自然形態가 아니고 變形態의 旋律線으로 된 것을 말하고 있다. 城邑地方에는 村老들 사이에 原形態의 이야홍타령이 불리워지는데 旋律線 斷層이 없다.

4. 轉 移

濟州島 民謠의 音組織은 章節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지만 어느 民謠는 唱者에 따라 어느 章節에서 音組織이 轉移되어 本來 構音에없던 音이 出現하는 수가 있다.

시우제소리는 原形인 巫歌의 시우제소리, 各地方의 시우제소리들이 그 音組織이 다르고, 終止音도 다르다. 城邑地方 시우제소리 〈악보 10〉는 Sol로 終止되고 終止音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長 6度上音으로 構成된 音組織을 갖는데 악보 10에서 第1小節에서 第6小節까지



는 原形의 音組織을 가지나 第7,8小節은 Do로 終止되고 이 音에서 長 2度上音, 4度上音, 5度上音, 長 6度上音으로 構成되어 原形態에서 4度上으로 音組織이 轉移되었다가 第9小節부터는 原形態로 復歸된다.

高山 이영돈(男 70세)씨가 부른 달구소리에도 音組織의 轉移가 보이나 이것은 唱者의 音感에서 中心音 不固定에 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交唱形式

濟州島 勞動謠는 交唱形式으로 딴 사람이 번갈아 부르는 民謠가 大部分이다.

章節마다 交唱하는 式은 「고래 고는 소리」「밭 밟는 소리」「톱질 소리」등 느린 自由리듬形態의 勞動謠에서 볼 수 있고 3分拍子 2拍 정도 사이로 두고 받어 나가는 交唱形式은 「해녀 노래」「방애 노래」가 있고 4拍정도 사이를 두고 받아 나가는 交唱形式은 「밭 찧는 노래」를 들 수 있다. 交唱形式이 發達한 것은 해녀 노래로 辭說을 받아가는 方法이 여러 가지 多樣하다.

① 앞소리 辭說을 따라 부르기

〈메기는 소리〉 명사십리——해당화야——꽃이진다——설어마라

〈받는 소리〉 명사십리——해당화야——꽃이진다——설어마라

② 앞소리 辭說을 이어 받아 부르기

〈메기는 소리〉 명사십리——꽃이진다

〈받는 소리〉 해당화야——설어마라

③ 앞소리와 別個의 辭說 부르기

〈메기는 소리〉 명사십리——해당해야——꽃이진다——설어마라

〈받는 소리〉 우리부모——날날적의——해도달도——엇일적의

④ 뒷소리로 交唱하기

〈메기는 소리〉 명사십리——해당해야

〈받는 소리〉 이여산아——설어말라——이여산여——이여사

이때 받는 소리는 메기는 소리와 가락이 다르게 交唱한다.

가장 일반적인 例는 ① 앞소리 辭說을 따라 부르는 즉 京畿地方 만수받이式이고 ②③은 드물다. 唱者가 3人 以上일 경우에는 제2받는이는 ④ 뒷소리로 交唱한다.

〈메기는 소리〉 명사십리——해당화야

〈제1받는 소리〉 ——명사십리——

〈제2받는 소리〉 이여산아——이여산아

메기는 소리는, 받는 소리가 받아 나가는 동안에도 메르스마를 부르기 때문에 이때 Heterophony가 생긴다.

3人 以上이 제가끔 다른 旋律로 부를 적에는 복잡한 偶然性 和音이 생긴다.

27

인용 악보

오돌또기(I) 애월리 고영수 (女60세)

오 — 돌 — 또 호 오 기 저 기 춘 향 머리로 갈 가 달 도 바 하 앍
제 가 머 리 로 갈 거 나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실 여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다 알 도 바 하 아 앍 고 제 가 머 리 로 갈 거 나
(1967. 3. 13 북제주군애월리)

오돌또기(II) 애월리 양성녀 (女49세)

오 호 도 올 도 호 오 기 저 허 기 춘 향 마 앍 고 달 도 바 하 — 아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거 나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여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달 도 바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거 나
(1967. 3. 13 북제주군애월리)

오돌또기 (III) 애월리 승희순 (女45세)

오 돌 도 호 오 기 저 기 춘 향 이 나 하 온 다 달 도 바 하 아 앍 고
제 가 버 리 고 갈 거 나 아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여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달 도 바 하 앍 고 제 가 머 리 로 갈 거 나
(1967. 3. 13 북제주군애월리)

오돌또기 (IV) 오조리 부두찬 (男44)

오 도 올 또 호 오 기 저 기 춘 향 나 온 다 달 도 바 하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거 나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여 도 당 실 여 도 당 실
하 연 자 버 리 고 원 하 춘 향 이 나 갈 까
(1966. 7. 22 성산면오조리)

오돌또기(V) 서귀포 박앵무 (女72)

오 호 도 올 또 호 오 기 저 기 춘 향 월 하 타 다 할 도 바 하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가 아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여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다 할 도 바 하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가
(1962. 12. 23 서귀읍서귀포)

오돌또기(VI) 함덕 부영민 (女57)

오 돌 또 — 오 옥 이 저 기 춘 향 머 어 리 달 도 바 앍 고
제 가 머 리 로 갈 거 나 아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실 여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달 도 바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거 나
(1962. 10. 1 조천면함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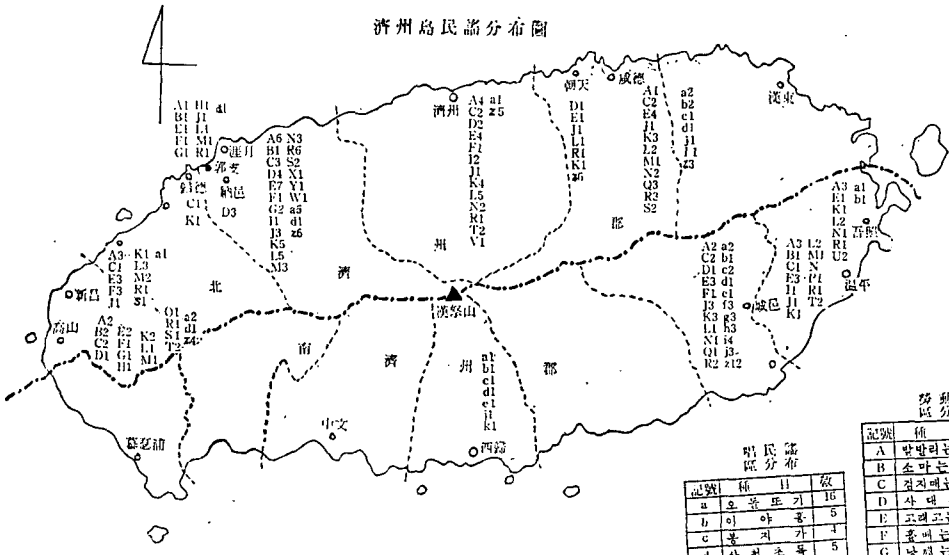
오돌또기(VII) 고산 박창선 (男67)

오 돌 또 기 저 기 춘 향 나 온 다 달 도 바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거 나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여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달 도 밝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거 나
(1970. 8. 4 한경면고산리)

오돌또기(VIII) 고산 좌봉현 (女70)

오 돌 또 오 기 저 — 기 춘 향 이 나 하 하 온 다 달 도 바 앍 고
내 가 머 리 로 갈 거 나 동 구 대 당 실 동 구 대 당 여 도 당 실 연 자 버 리 고
달 도 바 앍 고 제 가 머 리 로 갈 거 나
(1970. 8. 4 한경면고산리)

濟州島民謠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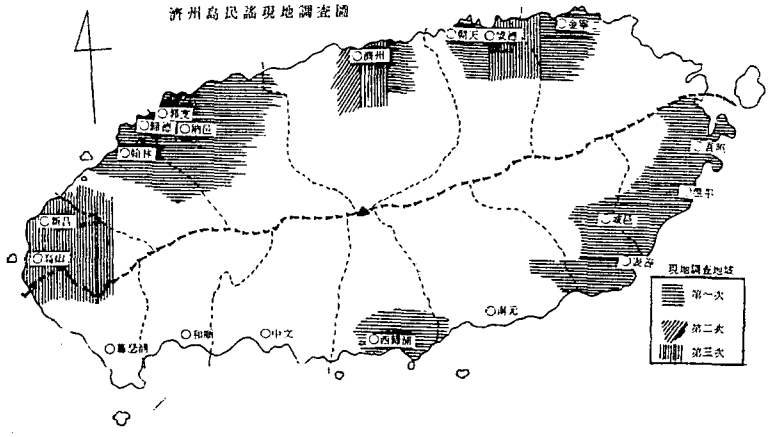
唱民謠區分布

記號	種目	數
a	오 돌 또 기	16
b	이 야 홍	5
c	봉 지 가	4
d	산 천 초 목	5
e	사 거 리	2
h	용 천 검	3
g	중 타 령	3
h	환 계 타 령	4
i	심 목 사	4
j	오 동 추 야	6
k	밀 치 삼 이	2
l	오 동 추 야	2
z	육 지 민 요	41

勞動謠區分表

記號	種目	數
A	발발리는소리	30
B	소마는 소리	5
C	검지매는소리	12
D	사 대 소 리	12
E	고래고는소리	29
F	홀매는 소리	7
G	낭새는 소리	4
H	몸 질 소 리	2
I	진 토 소 리	4
J	마 당 질 소리	12
K	방 애 늘 애	21
L	잠 녀 늘 애	23
M	달 구 소 리	10
N	상 여 소 리	10
O	풀 무 소 리	1
P	따 비 늘 애	2
Q	망 건·양 태	4
R	자 장 가	17
S	시 우 제 소 리	8
T	동 요	4
U	발판찧는소리	1
V	뗏 목 소 리	1
W	가 마 소 리	1
X	몸 질 소 리	1
Y	돈 방 애 늘 애	2

濟州島民謠現地調査圖



Ⅶ. 結　　論

濟州島 民謠는 크게 나누어서 勞動謠와 唱民謠로 區分된다.

濟州島 民謠의 리듬形態는 自由 리듬形態로 된 것과 固定 리듬形態로 된 것이 있고 固定 리듬形態의 民謠는 陸地部에서와 마찬가지로 3分拍子로 되었다

濟州島 民謠의 構成音階는 거의 全音 5音階로 되어 있어서 半音이 없다. 이점은 全羅道나 慶尙道 民謠 보다도 京畿民謠에 가깝다. Re로 終止되는 것과 Do로 終止 는것이 많고 Sol이나 La로終止되는 것도 보인다.

唱民謠의 大部分은 陸地部 民謠의 影響을 받았거나 陸地部의 古民謠들로 봐진다. 「사거리」「봉지와」「오동추야」「계화타령」「산천초목」等은 陸地部의 山打令과 關係가 있다고 보며 오들또기 이야홍타령은 濟州島 색채가 가장 짙은 唱民謠이지만 原形은 陸地部 民謠와 關係가 있을 것 같다.

唱民謠에는 自由 리듬形態가 없고 Re旋法이 드물지만 勞動謠에는 오히려 Re로 終止되거나 Do로 終止되고 自由 리듬形態로 된 것이 많다. 이런 形態가 濟州島 본래 音樂語法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밭 밟는 소리」「소모는 소리」「고래 고는 소리」같은 民謠가 原形態를 지닌 民謠라고 할 수 있다. 濟州島 民謠는 韓國音樂語法에 Re終止 및 Do終止되는 5音階를 보태어 주고 있다.

해녀 노래와 같은 交唱形式을 갖는 民謠는 2人 以上이 부를때 두 音 以上이 同時에 울리게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헤테로포니이고 和音構成을 위한 聲部 進行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濟州島 民謠에 琉球民謠의 影響은 보이지 않는다.

Ⅷ. 餘　　言

本文은 濟州島 民謠의 音樂的 構造 및 陸地部 民謠의 影響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 濟州島 民謠는 地域的으로 音樂的인 差異가 甚하다. 이 差異는 東南部와 西北部에 더욱 뚜렷하다. 이 差異에 대한 比較音樂的인 硏究는 다음 第2次 段階硏究로 進行할 방침이다. 그리고 다음 段階로 濟州島 民謠에 나타난 外國民謠影響, 城邑地方 陸地部 古民謠硏究도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Ⅸ. 引用 樂譜 目錄

(ㄱ) 검질 매는 소리(김 매는 소리)……악보 6

고래 고는 소리(맷돌 타는 소리)……악보 3-c

(ㄴ) 낭 깨는 소리(도끼질 소리) ……악보 4

(ㄷ) 달구 소리 ……악보 2
따비 놀애(쟁기질 소리)……악보 21
(ㅁ) 마당질 소리(도리깨질 소리)……악보 7
(ㅂ) 발판 찧는 소리……악보 8
방애 놀애(방아 찧는 소리) ……악보 4
밭 발리는 소리(밭 밟는 소리)……악보 3-b
봉지가……악보 15
(ㅅ) 산천초목……악보 13
시우제 소리 ……악보 9
심목사(관덕정 앞) ……악보 18
(ㅇ) 오돌또기……악보 12
용천검……악보 14
이양홍……악보 12
(ㅊ) 중타령……악보 16
(ㅌ) 톱질 소리 ……악보 1
(ㅎ) 환계 타령 ……악보 17

=ABSTRACT=

THE STUDY OF THE COMPUSITIN OF THE FOLK SONG OF JE JOO PROVINCE (I)

LA, UN-YUNG

There is much abifference in musical features of the folk songs between Je-joo Province and the peninsula just as there is a difference in peculiar dialect and folk customs, because Je-joo province is long distance from the peninsula.

I have been to Je-joo province three times and I collected and arranged about 400 folk songs of Je-joo province.

Because the people of Je-joo island to work hard in order ts conquer the bad geographical circumstances they have many songs which are sung when they work.

There are work songs in agriculture, stock-raising, fishing, ete. I think that Je-joo work songs have peculiar characteristics. Most of the work songs have strophic Song and a short refrain which contains meaningless exclamatians. The rhythm of the work song is divided into the form of free rhythm and that of fixed, but there is more of the former than the latter. all of them have the pecueior grace note of Je-joo province's and melisma, but, then I suppose that is the Je-joo way. The form of fixed rhythm consist of triple time. The canstructed notes are made with diatonic pentatonic scale and the ending note is mostly Re, but sometimes the ending note is Do. The Re-ending scarcely exists in folk songs ofthe province.

All of the "Chang" folk songs are in the form of fixed rhythm and they are similar to the folk sogs of the province with regard to time which is triple time. Je-joo folk songs cansist of triple time ($\frac{3}{8}$) like Se- ma-chi, four time ($\frac{12}{8}$) like kut-ku-ri and other irregular times. Notes of "chang" is composed of diatonic pentatonic scale. It's ending is not only Re. Do, but Sol, La.

Much "Cang" folk songs which are collected at South-East part of Je-joo by Sung-Eub have Sol-ending and La-ending, because of that I suppose they are influenced by folk song of the peninsula. I suppose the "Chang" folk song which came from the peninsula to Je-joo provnce is same kind folk song of the peninsula, for some of them

have old words which we can find out at old Korean literature. "Chang" folk songs in Je-joo province are very important lituature of music for studying old Korean folk songs.

When the work songs of Je-joo province, "*Hae Nyu No Rai*" and "*Bang ae No Rai*" specially are sung by many people, they sing these songs by free canon or cross way and they do not sing them together. In this case heterophony is made, so casual harmony derived form.

The melodic form of work song in repeated to the under side and sametimes have a free form.